

제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표류

대구 등 전국 5개 지역 전문병원 설립 계획 확정 제주 잇따라 고배... 내년 설립 가능성도 불투명 질병관리청 “제주는 인구와 환자 적어 병상 축소”

질병관리청이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은 연구 용역을 다시 벌여 제주 감염병 전문병원 병상 수를 법정기준보다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주권역 설립을 유보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제주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병상 수를 재산정하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말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독립적인 감염병 병동을 운영하며 환자 치료를 전담하고 권역 내 환자 배정과 전문 업무를 도맡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나서고 있다. 당시 용역 결과 제주, 인천, 중부, 영남, 호남 등 전국 5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병상 수를 법정기준보다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중 호남, 중부, 영남 등 3개 권역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계획은 확정됐다. 따라서 남은 권역은 제주와 인천 등 2곳 뿐이었지만, 지난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원하는 지자체가 늘었다는 이유로 용역에도 없던 대구·경북 권역을 내년 제2차 설립 지역으로 선정했다. 올해 5번째 설립 지역을 확정하기 위한 공모가 진행되고 있지만 공모 대상

이 인천 등 수도권권역으로 국한되면서 이번에도 제주는 제외됐다.

제주 권역 설립 계획은 내년에도 불투명하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전문병원 적정 병상 수에 대한 재산정 연구 용역이 끝날 때까지 제주 설립 계획을 유보하기로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감염병 전문병원 병상 수는 음압병상, 중환자병상 등 36병상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36병상까지는 정부가 전액 국비로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그 이상은 설립 권역의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제주는 다른 권역보다 인구 수와 코로나19 환자 수가 적다며 도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병상 수를 법정 기준보다 적은 36병상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법정 기준을 바꿔서라도 제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병상 수를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전부 36병상 이상으로 설계됐다.

연구용역 실시 여부도 불투명하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에 제주권역 병상 재산정 연구 용역비를 편성해달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두차례 모두 거절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적 연구용역비’ 대상에 병상 수 재산정 용역비를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만약 반영된다면 올해 안에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는 정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제주는 섬이라는 고립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해외 유입 감염병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제주에 우선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기자

37년 동안 헌혈 500번 한 천사

올해 63세 된 김기태씨 “헌혈은 사랑과 봉사활동 한계연령 69세까지 할 것”

제주에서 네 번째 ‘500회 헌혈자’가 탄생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기태(63)씨가 제주시 헌혈의 집 한라센터에서 500회 헌혈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록은 김씨가 헌혈에 참여하기 시작한 지 37년 만이며, 제주에서 500회 이상 헌혈자로는 네 번째 기록이다.

김씨는 1984년 2월 군 복무 중 건강 확인을 위해 헌혈을 시작했다. 1992년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재직 시에는 RCY 지도교사를 맡았으며, 동료 RCY 교사가 백혈병으로 쓰러져 헌혈증 모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뒤 현재까지 헌혈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김씨는 “헌혈은 사랑과 봉사의 활동 중 하나로 모든 이들에게 헌혈이 일상화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관리를 잘해서 헌혈 제한 나이인 만 69세까지 헌혈을 지속해 혈액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도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 관계자는 “겨울철이 되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상황이 심각해져 헌혈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29t 어선 항해 중 침수 해경 긴급출동해 예인

항해 중 침수되던 어선이 인명피해 없이 무사히 예인됐다.

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애월읍 북동쪽 약 13km 해상에서 항해 중 이던 A호(29t·근해연승·모슬포 선적·승선원 9명)가 침수 중이라는 구조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해경은 함정 3척과 연안구조정 2척, 구조대를 급파해 구조에 나섰다.

제주해경은 A호를 확인한 결과 프로펠러 연결부위에 누수가 발생해 기관실이 60cm 정도 침수되며 선체가 오른쪽으로 3도 가량 기울어진 상태를 파악하고 기관실에 대한 배수 작업을 실시했다.

해경은 배수 작업 이후에도 A호가 기관을 사용하면 누수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후 6시37분부터 A호 예인을 시작해 오후 8시45분쯤 제주항 안전지대에 계류 조치를 완료했다. 김도영기자



창공을 날으는 패러글라이딩 3일 제주시 함덕서우봉에서 관광객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며 제주의 겨울을 만끽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운전자 바뀌치기 무면허 뺑소니 30대 실형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30대 운전자 바뀌치기를 시도하다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3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친구 A(34)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

시 3시50분쯤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한 뒤 도주했다. 김씨는 이튿날 친구 A씨에게 화물차 운전자라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했고, A씨는 같은 날 제주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출석해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진술했다. 송은범기자

대정읍 양돈장 화재 돼지 148마리 폐사

새벽 시간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돼지 148마리가 폐사했다.

3일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8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의 한 양돈장 분만동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붕이 붕괴되며 모든 48두, 자돈 100두 등 총 148두의 돼지가 불에 타 폐사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양돈장 분만동 1개 동이 전소되고 돼지 148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1억4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양돈장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성폭행 혐의 50대 검찰 송치

제주시의 한 공터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 공터에서 평소 얼굴을 알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지난달 24일 자수해 구속됐다. 김도영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祚 20년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락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4년생
감평(레드향) 3,4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EM) 3,4년생, 남진해 3,4년생
부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에월을 상귀리 716번지 870평

성전온주 2년생
유라조생 1년생
천혜향 1,2년생
감평(레드향) 1,2년생
병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3690-2453, 010-5676-8820

감귤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리온(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리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번이치),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병자묘목(1000본 이상)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5년생 화분·하례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리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대)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